한화 BDNA공장 증설

유럽지역 수출 증가로 … 국내 수요기업들 외면

국내에서 염 · 안료 중간체를 생산하고 있는 (주)한화(대표: 오재덕)가 분산염료 중간체 중의 하나인 BDNA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내수 물량의 증가보다는 수출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 따르면 분산염료 BLUE-79.VIOLET 24 등 블루칼라 생산에 사용되는 BDNA(6-Bromo-2.4-Dinitro Anilne)의 생산규모를 연간 1200톤에서 1500톤으로 증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BDNA는 한화가 독점공급하고 있으나 국내 분산염료 생산기업에서는 국내 제품보다는 저가의 중국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BDNA는 30% 정도만 럭키,경인양행 등 국내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다른 염 · 안료 중간체처럼 70% 정도를 ICI, 산도스, 훽스트, BASF 등 유럽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분산염료 생산 기업들이 한화의 BDNA를 외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품질보다는 가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DNA를 중간체로 사용해 만들어지는 주 품목인 BLUE-79는 18~19달러에서 5~6달러로 떨어지는 한편, 중국제품이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보다 30~40% 비싼 원료를 사용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 염료업계와 중간체 생산기업간의 이러한 딜레마는 후방산업인 염료시장의 전방산업인 중간체 생산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국내 분산염료 시장은 지난 1/4분기에 엔고 및 중국에 대한 폴리에스터섬유의 수출증가로 5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수입도 1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개발 추이도 값싼 안트라퀴논계 보다는 견뢰도가 좋고 신합섬 염색에 적당한 아조계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중간체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한편, 현재 한화는 BDNA를 NCB->PNCB->2,4DNCB->2,4DMA->BDNA로 이어지는 일괄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학저널 1994/6/13>